

수능 1등급으로 가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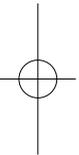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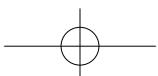
美來路 미래로



수능 기출문제집 02

전 지문 완벽 분석 및 모든 선택지 집중 해설

국어 독서





美來路 국어 독서

수능 기출문제집 시리즈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그 꿈을 닮아간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꿈은 희망이며 가능성입니다. 꿈과 희망을 현실로 바꾸어가는 과정에서 미래로(美來路) 수능 기출문제집 시리즈가 여러분의 좋은 동반자가 되고자 합니다.

이 책을 집필한 선생님들

김주혁 압구정국어논술전문학원 원장, EBS 강사
임동민 인명여고
이효선 정신여고
안희진 서울사대부고

1판 1쇄 발행일 : 2017년 12월 15일

펴낸이 : 이동준, 정재현
 기획 및 편집 : 김기진, 김은수, 박영미
 디자인 : 굿월드디자인

펴낸곳 : (주)이룸이앤비
 출판신고번호 : 제2009-000168호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6길 4-3 이룸빌딩(우 06312)
 대표전화 : 02-424-2410
 팩스 : 02-424-5006
 홈페이지 : www.erumenb.com
 ISBN : 978-89-5990-430-3

Copyright © (주)이룸이앤비, 2018
 이 책에 실린 모든 디자인 및 편집 형태에 대한 저작권은 (주)이룸이앤비에 있으므로 무단으로 전재 또는 복제할 수 없습니다.
 잘못 만들어진 책은 구입하신 서점에서 바꾸어 드립니다.



국어 독서 기출문제집 이렇게 공부하세요!

매일 일정한
학습 분량을 정해
꾸준히
공부합니다.

각 제재별로 공부해도 좋고 제재를 혼합하여 공부해도 좋지만, 하루에 정한 학습 목표량은 반드시 소화하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국어에 대한 감각이 유지되고 실력이 향상됩니다.

제한 시간을
정한 후 각 단계별로
제대로 푸는
연습을 합니다.

시간 부족은 대부분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 때문에 발생합니다.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지문을 읽은 후, 문제를 풀면서 또다시 읽게 되면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이에 제한 시간을 정해 놓고 각 단계별로 제대로 문제를 푸는 훈련을 꾸준히 반복해야 합니다.

정답만 찾는
공부법보다는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공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정답과 오답 정도만 확인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풀이 과정을 통해 문제를 풀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는다면 기출문제를 효과적으로 공부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매년 새롭게 출제되는 수능에서는 이미 나온 문제가 똑같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답만 찾는 공부법보다는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공부해야 합니다.

자신의 약점
제재 및 유형을
파악해야 합니다.

기출문제를 풀기 시작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학습 상황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약점 제재나 유형 또는 실수를 많이 한 문제 등을 찾아야 합니다. 오답노트를 작성하는 방법이나 책에 별도의 표시를 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여 시험이 임박한 시기일수록 약점 부분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출문제집을
두 번 이상 반복하여
복습합니다.

기출문제집은 가장 검증된 문제로 구성되었기에 적어도 두 번 이상의 반복 학습과 복습을 해야 합니다. 이때의 복습은 정답과 오답의 근거를 제시문에서 찾아 정확하게 문제를 풀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결과가 아닌 과정을 복습해야 실력이 향상됩니다.



이 책의 구성과 특징

1 문제 유형 분석 + 만점 풀이법으로 효율적 수능 대비

문제의 유형 및 해결 전략
비문학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을 분석하고 해결 전략 등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수능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문학 문제의 유형 및 해결 전략
비문학 문제의 유형과 해결 전략을 숙지하고 수 있다. 그리고 신유형의 문제도 기존 유형을 하지 않고 풀 수 있다. 비문학 독해 문제 유형은 대개 6가지 정도로

비문학 만점 풀이법
(이래로 독서 활용법)
1 문제 분석
2 지문 분석
3 반복 풀이
4 반복 풀이

비문학 만점 풀이법
비문학 공부법을 3단계로 나누어 살펴 보았습니다. 또한 이 공부법을 미래로 기술문제집에 적용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2 일차별(25일) + 난이도별 구성으로 단계별, 수준별 학습 가능

일차별(25일) 구성
수능 및 평가원, 교육청 기출문제를 1일 3세트 25일을 기준으로 구성하였으므로 각각의 학습 일정표에 따라 꾸준히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난이도별 구성
제재별로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지는 순서로 구성되어 단계별,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먼저 쉬운 단계의 문제를 풀 후, 자신의 수준을 점검한 다음 학습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지문 분석 노트
'지문 분석 노트' 분석란을 만들어, 스스로 분석한 지문의 내용과 수록된 해설을 비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정답률+고난도 Guide
각 세트별 3점 문항이나 고난도 문항에는 구체적인 문제 해결 Guide를 수록하여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Structure

3 융합형 지문 + 최신 기출문제 총망라로 출제 경향 파악이 쉬운 구성

융합형 지문

최근 새롭게 출제되고 있는 융합형 지문을 쉽게 파악하여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최신 기출문제

최근 7개년 수능 및 평가원, 교육청 기출문제를 총망라하여, 연도별 수능 출제 경향 및 유형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The image shows two pages from a study book. The left page is titled '24 DAY' and contains text about '융합형 지문' (Integrated Text) and '최신 기출문제' (Latest Past Questions). The right page is titled '기출 우수 문항 모' (Past Question Excellent Items Collection) and contains a table of contents for various years and subjects.

기출 우수 문항 모의고사

수능 문제의 출제 유형은 해마다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기존 기출문제 중에서도 우수한 문항을 엄선하여 미니 모의고사 형태로 구성하였습니다.

4 秘 서브노트;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하도록 모든 지문 및 정·오답 완벽 분석

전 지문 행간주 분석

'秘 서브노트'는 모든 수록 지문에 행간주로 설명을 하고 지문 해제, 지문 이해, 주제, 출제 의도 등을 통해 혼자서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전 문제 분석

수록된 모든 문제와 정답 및 오답까지도 꼼꼼히 분석하여 어느 부분 때문에 정답과 오답이 갈리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秘 서브노트'를 통해 문제 풀이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능 특독

문제 해설 중간중간에 선별적으로 '수능 특독'란을 만들어 필요한 개념이나 효율적인 풀이 방법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시간 단축 및 효과적인 풀이 방법을 익히기 바랍니다.

The image shows detailed analysis pages from the study book. The left page is titled '[지구과학] 별의 겹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and contains text about star magnitudes. The right page is titled '문제 분석' and contains a table of contents for various years and subjects, along with a '수능 특독' section.

이 책의 차례 / STUDY PLANNING

I 제재별로 감잡기

【수능 특강】 수능 비문학 독해 개념 정리 + 비문학 문제의 유형 및 해결 전략 + 비문학 만점 풀이법

1 인문

| | | | | 공부한 날 |
|--------|----------------------------------|--------------|-------|----------------------|
| DAY 01 | 하 01 철학_인간과 포스트휴머니즘 | 2014년 3월 교육청 | p.026 | <input type="text"/> |
| | 하 02 논리학_사후 과잉 확산 편향과 인과 추론 | 2015년 3월 교육청 | p.028 | <input type="text"/> |
| | 하 03 철학_『대학』의 '명명덕'과 '친민'에 대한 해석 | 2013년 9월 평가원 | p.031 | <input type="text"/> |
| DAY 02 | 중하 04 철학_심신 이원론과 심신 일원론 | 2014학년도 수능 | p.034 | <input type="text"/> |
| | 중하 05 철학_도덕 감정론 | 2016년 3월 교육청 | p.036 | <input type="text"/> |
| | 중하 06 철학_장자의 물아일체 사상 | 2015년 6월 평가원 | p.038 | <input type="text"/> |
| DAY 03 | 중 07 논리학_정합설에 따른 명제의 진위 판단 | 2014년 6월 평가원 | p.040 | <input type="text"/> |
| | 중 08 철학_도덕적 운과 도덕적 평가 | 2016학년도 수능 | p.042 | <input type="text"/> |
| | 중 09 철학_맹자의 '의' 사상 | 2014년 9월 평가원 | p.045 | <input type="text"/> |

2 사회

| | | | | 공부한 날 |
|--------|------------------------------------|--------------|-------|----------------------|
| DAY 04 | 하 01 경제_관광소비자행동론 | 2014년 3월 교육청 | p.050 | <input type="text"/> |
| | 하 02 사회 제도_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 결정 방식 | 2014년 9월 평가원 | p.052 | <input type="text"/> |
| | 하 03 광고_간접 광고 제도 | 2014학년도 수능 | p.054 | <input type="text"/> |
| DAY 05 | 중하 04 사회 이론_19세기 시민 사회론 | 2015학년도 수능 | p.058 | <input type="text"/> |
| | 중하 05 사회 제도_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 | 2015년 6월 평가원 | p.060 | <input type="text"/> |
| | 중하 06 경영_지식 경영론 | 2016학년도 수능 | p.062 | <input type="text"/> |
| DAY 06 | 중 07 사회 이론_올리히 벡과 지그문트 바우만의 현대 사회론 | 2015년 6월 평가원 | p.065 | <input type="text"/> |
| | 중 08 경제_거시경제학, 거시경제론 | 2016년 3월 교육청 | p.067 | <input type="text"/> |
| | 중 09 사회 이론_기술의 발달에 따른 사회 변화 | 2015년 9월 평가원 | p.069 | <input type="text"/> |

3 과학

| | | | | 공부한 날 |
|--------|-----------------------------|--------------|-------|----------------------|
| DAY 07 | 하 01 지구과학_생동하는 지구 | 2015년 3월 교육청 | p.074 | <input type="text"/> |
| | 하 02 물리_점탄성체의 물리적 현상 | 2014년 9월 평가원 | p.076 | <input type="text"/> |
| | 하 03 지구과학_별의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 2014년 6월 평가원 | p.078 | <input type="text"/> |
| DAY 08 | 중하 04 지구과학_단안 단서를 활용한 입체 지각 | 2013년 6월 평가원 | p.080 | <input type="text"/> |
| | 중하 05 지구과학_우주의 암흑 물질 | 2015년 6월 평가원 | p.082 | <input type="text"/> |
| | 중하 06 생명과학_암 치료에 사용되는 항암제 | 2015년 9월 평가원 | p.084 | <input type="text"/> |
| DAY 09 | 중 07 지구과학_달과 지구의 공전 궤도 | 2015학년도 수능 | p.086 | <input type="text"/> |
| | 중 08 물리_파동과 음파 | 2016년 3월 교육청 | p.088 | <input type="text"/> |
| | 중 09 물리_빛방울의 중단 속도 | 2016학년도 수능 | p.091 | <input type="text"/> |

Contents

4 기술

| 날짜 | 수준 | 제목 | 시험명 | 페이지 | 공부한 날 |
|--------|----|-------------------------------|--------------|-------|----------------------|
| DAY 10 | 하 | 01 컴퓨터_컴퓨터 CPU(중앙 처리 장치) 스케줄링 | 2014년 9월 평가원 | p.096 | <input type="text"/> |
| | 하 | 02 산업 기술_조명 기구의 발광 원리와 효율 | 2014년 6월 평가원 | p.098 | <input type="text"/> |
| | 하 | 03 산업 기술_수계 소화 설비 공학 | 2015년 3월 교육청 | p.100 | <input type="text"/> |
| DAY 11 | 중하 | 04 산업 기술_3축 가속도 센서 | 2014년 3월 교육청 | p.104 | <input type="text"/> |
| | 중하 | 05 산업 기술_지문 인식 시스템 | 2015년 6월 평가원 | p.106 | <input type="text"/> |
| | 중하 | 06 산업 기술_디지털 영상의 확대와 축소 | 2015학년도 수능 | p.108 | <input type="text"/> |
| DAY 12 | 중 | 07 컴퓨터_해시 함수의 특성과 이용 | 2015년 9월 평가원 | p.110 | <input type="text"/> |
| | 중 | 08 반도체_애벌랜치 광다이오드 | 2016학년도 수능 | p.112 | <input type="text"/> |
| | 중 | 09 컴퓨터_인공 신경망의 학습과 판정 | 2016년 6월 평가원 | p.114 | <input type="text"/> |

5 예술

| 날짜 | 수준 | 제목 | 시험명 | 페이지 | 공부한 날 |
|--------|----|---------------------------|--------------|-------|----------------------|
| DAY 13 | 하 | 01 미술_추사 김정희의 묵란화 | 2014년 9월 평가원 | p.120 | <input type="text"/> |
| | 하 | 02 영화_작가주의 비평 이론 | 2014년 6월 평가원 | p.122 | <input type="text"/> |
| | 하 | 03 건축 미술_캄피돌리오 광장의 조형적 특성 | 2013년 6월 평가원 | p.124 | <input type="text"/> |
| DAY 14 | 중하 | 04 음악_베토벤 교향곡의 음악사적 의의 | 2014학년도 수능 | p.126 | <input type="text"/> |
| | 중하 | 05 건축 미술_고딕, 불멸의 아름다움 | 2015년 3월 교육청 | p.128 | <input type="text"/> |
| | 중하 | 06 미술_20세기 미술의 특징 | 2013년 9월 평가원 | p.130 | <input type="text"/> |
| DAY 15 | 중 | 07 미술_세기를 빛낸 위대한 화가들 | 2013년 3월 교육청 | p.132 | <input type="text"/> |
| | 중 | 08 사진_회화주의 사진 | 2015년 9월 평가원 | p.134 | <input type="text"/> |
| | 중 | 09 미술_아나모르프시스 | 2014년 3월 교육청 | p.137 | <input type="text"/> |

II

고난도로 실력 높이기

| 날짜 | 수준 | 제목 | 시험명 | 페이지 | 공부한 날 |
|--------|----|---|--------------|-------|----------------------|
| DAY 16 | 중상 | <인문> 철학_과학철학의 설명 이론 | 2015년 9월 평가원 | p.140 | <input type="text"/> |
| | 중상 | <사회> 광고_상업 광고에 대한 규제 | 2014년 6월 평가원 | p.143 | <input type="text"/> |
| | 중상 | <과학> 물리_각운동량 보존 법칙 | 2013년 9월 평가원 | p.145 | <input type="text"/> |
| DAY 17 | 중상 | <기술> 반도체_플래시 메모리의 구조와 작동 원리 | 2013년 6월 평가원 | p.148 | <input type="text"/> |
| | 중상 | <예술> 미술_아서 단토의 미술종말론과 그 근거로서 팝아트의 두 가지 함의 | 2016년 3월 교육청 | p.150 | <input type="text"/> |
| | 중상 | <인문> 철학_지식의 구분 | 2017학년도 수능 | p.152 | <input type="text"/> |
| DAY 18 | 중상 | <사회> 법률_사단 법인의 법인격과 법인격 부인론 | 2016년 9월 평가원 | p.155 | <input type="text"/> |
| | 중상 | <과학> 지구과학_지구 상의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전향력 | 2014학년도 수능 | p.158 | <input type="text"/> |
| | 중상 | <기술> 건축 기술_콘크리트를 통해 본 건축 재료와 건축 미학 | 2016년 9월 평가원 | p.160 | <input type="text"/> |



STUDY PLANNING

| | | | | 공부한 날 |
|--------|---|--------------|-------|----------------------|
| DAY 19 | 상 <예술> 미학_칸트의 취미 판단 이론 | 2015학년도 수능 | p.164 | <input type="text"/> |
| | 상 <인문> 논리학_유비 논증의 개념과 유용성 | 2016년 6월 평가원 | p.166 | <input type="text"/> |
| | 상 <사회> 법률_부관의 법률적 효력 | 2016학년도 수능 | p.169 | <input type="text"/> |
| DAY 20 | 상 <과학> 생명과학_반추 동물의 탄수화물 분해 | 2017학년도 수능 | p.172 | <input type="text"/> |
| | 상 <기술> 산업 기술_CD 드라이브의 정보 판독 원리 | 2014학년도 수능 | p.175 | <input type="text"/> |
| | 상 <예술+과학> 음악+물리(융합)_다양한 특성의 음들로 이루어진 음악의 아름다움 | 2016년 6월 평가원 | p.177 | <input type="text"/> |
| DAY 21 | 상 <인문> 역사_신채호의 역사관 | 2015학년도 수능 | p.182 | <input type="text"/> |
| | 상 <사회> 경제+법률_보험의 경제학적 원리와 고지 의무 | 2017학년도 수능 | p.184 | <input type="text"/> |
| | 상 <과학> 물리_열역학에 대한 과학자들의 탐구 과정 | 2016년 9월 평가원 | p.188 | <input type="text"/> |

III 2017년 기출 모의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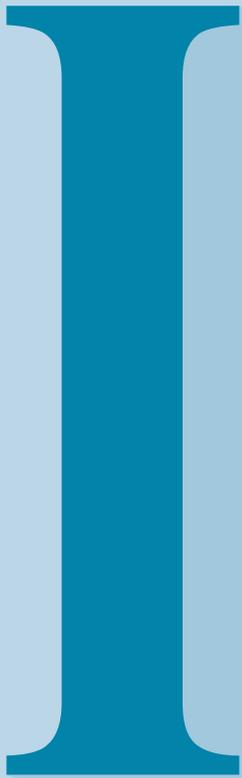
| | | | | 공부한 날 |
|--------|---|--------------|-------|----------------------|
| DAY 22 | 중상 <인문> 논리학_논리와 심리 | 2017년 3월 교육청 | p.192 | <input type="text"/> |
| | 중 <사회> 경제_미시경제학 | 2017년 3월 교육청 | p.195 | <input type="text"/> |
| | 중상 <과학+예술> 화학+미술(융합)_가법 색 혼합과 감법 색 혼합 | 2017년 3월 교육청 | p.198 | <input type="text"/> |
| DAY 23 | 중 <인문> 철학_율곡의 법제 개혁론 | 2017년 6월 평가원 | p.202 | <input type="text"/> |
| | 중상 <사회> 경제_통화 정책 | 2017년 6월 평가원 | p.206 | <input type="text"/> |
| | 중상 <기술> 산업 기술_DNS 스푸핑이 이루어지는 과정 | 2017년 6월 평가원 | p.209 | <input type="text"/> |
| DAY 24 | 중 <사회> 사회 이론_집합 의례 | 2017년 9월 평가원 | p.212 | <input type="text"/> |
| | 상 <과학+인문> 물리+논리학(융합)_상호 배타적인 상태가 공존하는 양자 역학과 비교전 논리 | 2017년 9월 평가원 | p.215 | <input type="text"/> |
| | 중하 <예술> 미술_하이퍼리얼리즘 | 2017년 9월 평가원 | p.219 | <input type="text"/> |
| DAY 25 | 중하 <인문> 철학_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 | 2018학년도 수능 | p.222 | <input type="text"/> |
| | 상 <사회> 경제_정부의 정책 수단 | 2018학년도 수능 | p.225 | <input type="text"/> |
| | 상 <기술> 산업 기술_디지털 데이터의 부호화 과정 | 2018학년도 수능 | p.229 | <input type="text"/> |

IV 기출 우수 문항 모의고사

- 제1회 모의고사 p.234
- 제2회 모의고사 p.240
- 제3회 모의고사 p.246
- 제4회 모의고사 p.252
- 제5회 모의고사 p.258

美來路

수능 기출문제집 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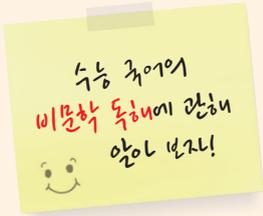
제재별로 감잡기

수능 특강

- 수능 비문학 독해 개념 정리
- 비문학 문제의 유형 및 해결 전략
- 비문학 만점 풀이법

| | | | |
|----|------------------|----|----|
| 인문 | DAY 01 <001~011> | 인문 | 하 |
| | DAY 02 <012~022> | 인문 | 중하 |
| | DAY 03 <023~035> | 인문 | 중 |
| 사회 | DAY 04 <036~046> | 사회 | 하 |
| | DAY 05 <047~058> | 사회 | 중하 |
| | DAY 06 <059~070> | 사회 | 중 |
| 과학 | DAY 07 <071~076> | 과학 | 하 |
| | DAY 08 <077~082> | 과학 | 중하 |
| | DAY 09 <083~090> | 과학 | 중 |
| 기술 | DAY 10 <091~098> | 기술 | 하 |
| | DAY 11 <099~107> | 기술 | 중하 |
| | DAY 12 <108~117> | 기술 | 중 |
| 예술 | DAY 13 <118~129> | 예술 | 하 |
| | DAY 14 <130~139> | 예술 | 중하 |
| | DAY 15 <140~148> | 예술 | 중 |

T H I N K M O R E A B O U T Y O U R F U T U R E



수능 비문학 독해 개념 정리

1 비문학이란 무엇일까?

문학 외의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등을 제재로 한 논설문이나 설명문, 기사문, 보고서 등의 실용문을 통틀어서 '비문학'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비문학을 읽어서 뜻을 이해하는 것을 '비문학 독해'라고 한다.

2 비문학 독해를 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이 있을까?

수능 국어에서는 전반적으로 사실적 사고 능력이 요구되는 문제의 출제 비율이 가장 높은 편이지만, 지문의 성격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 때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및 어휘 능력** 등이 요구된다.

3 비문학은 제재에 따라 출제되는 문제가 다를까?

제재에 따라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 다만, **인문이나 예술 제재의 지문**에서는 사실적 사고나 창의적 사고와 관련된 문제 유형이, **사회나 과학, 기술 제재의 지문**에서는 추론적 사고나 비판적 사고와 관련된 문제 유형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4 최근 수능 비문학의 출제 경향은 어떠한가?

최근 수능 국어의 비문학 영역에서는 제시되는 지문의 수가 줄어드는 대신에 **지문의 길이가 길어져** 정보의 양이 많아졌다. 또 **융합 지문**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며, 하나의 지문에 **5~6문항**이 출제되고 있다.

5 수능 비문학을 효과적으로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출 문제로 제한 시간 내에 풀고 복습까지 꾸준히 훈련하여 독해력을 길러야 한다. 기출 문제는 다양한 제재로 훈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잘 다듬어진 지문과 양질의 문제로 이루어져 있어 가장 효과적으로 독해 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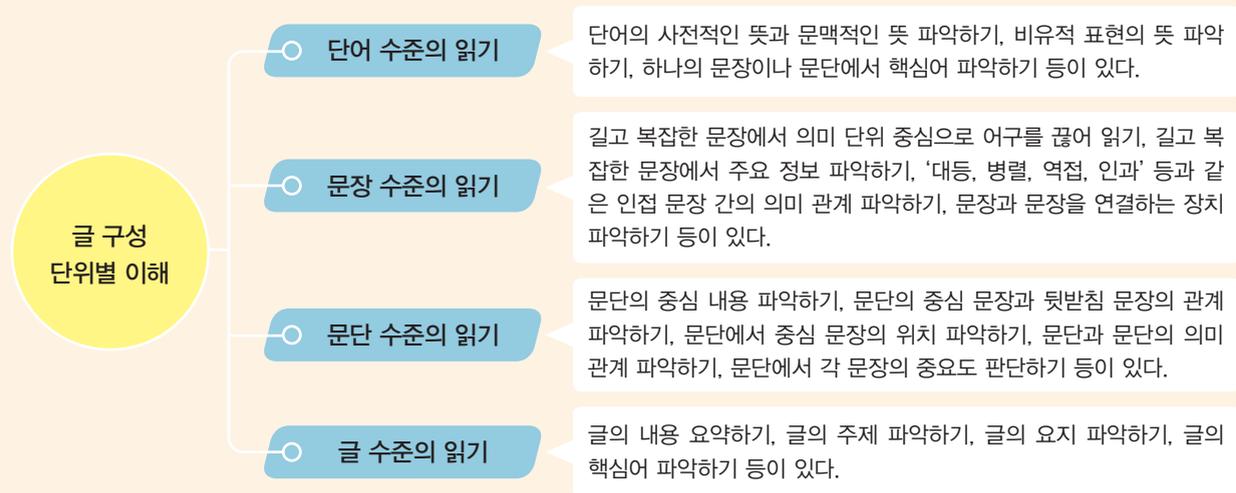
또한 문제를 풀면서 **문제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내가 어떤 유형에 약한지를 찾아내고 극복해야 한다.** 오답노트를 작성하고 이를 몇 번 정도 보면 어느 유형에서 약한지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문제의 유형을 익히고 공부했다라도 신유형의 문제와 마주하게 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난이도와 상관없이 당황한다. 그런데 신유형 문제도 자세히 보면 기존 유형을 다르게 변형시킨 것들이다. 따라서 기존의 유형을 충분히 공부했다면 신유형 문제를 푸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비문학 독해의 원리는 다음의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사실적 독해, 추론적 독해, 비판적 독해, 창의적 독해”
 사실적 독해부터 살펴 보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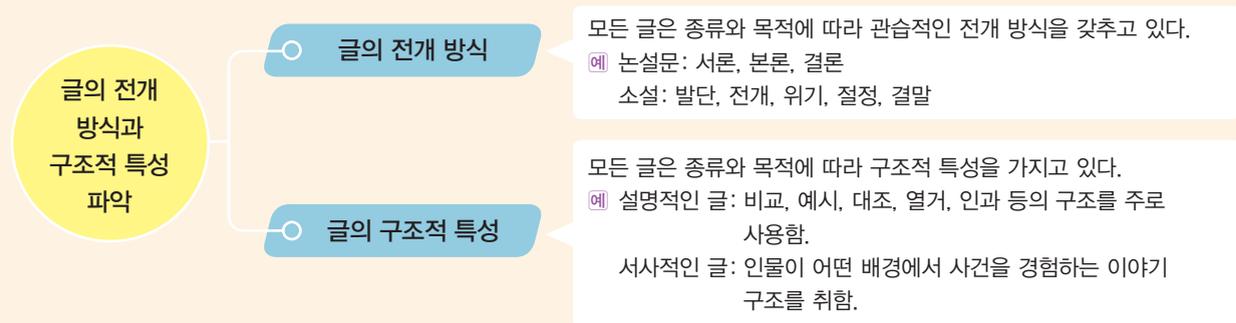
1 사실적 독해

사실적 독해는 글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정보들을 파악하여 글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즉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글 전체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글 전체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지문을 하나의 구조로 이해하여 각 문단들이 상호간에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글 전체의 구조를 파악할 때 다음을 유의해야 한다.

- ① 글을 읽을 때 항상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읽는다.
- ② 글의 전체적인 짜임새를 도식화하는 연습을 통해 정확하게 글을 이해해야 한다.



비문학 문제의 유형 및 해결 전략

비문학 문제의 유형과 해결 전략을 숙지하고 연습하면 **자신의 취약한 유형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 **반복해서 틀리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신유형의 문제도** 기존 유형을 다르게 변형시킨 것들이므로, 기존의 문제 유형을 충분히 연습하면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다**.

비문학 독해 문제 유형은 대개 **6가지 정도로 유형을 분류**할 수 있는데, 문제 유형 1부터 하나하나 살펴보자.

문제 유형

1 세부 정보의 파악

글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했는지를 묻는 **문제 유형**으로, 모든 제재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다. 주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는 물론 세부 내용에 대한 이해를** 묻는다.

세부 정보를 파악하는 유형의 경우 **선택지를 만드는 원리를 파악하고 있으면 보다 쉽게 정답에 접근**할 수 있다. 그 원리는 대체로 3가지로 나타나는데, 다음과 같다.

- ① 복사하기: 지문에서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방법.
- ② 요약하기: 지문에서 길게 설명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는 방법.
- ③ 재진술하기: 지문에서 진술한 내용을 유사한 의미의 다른 말로 표현하는 방법.

유형 분석 해결 전략

- ① 글 전체 내용과 관련하여, 내용의 일치 여부나 글에서 다른 내용의 파악, 중심 화제(표제와 부제)의 파악 등을 물을 수 있다.

발문 유형

- 읽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 수능)
- 읽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2016. 6월 평가원)
- 읽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016 수능)

해결 전략

- * 문단별로 핵심어, 중심 문장 등을 찾아 문단의 중심 내용을 정리한다.
- * 선택지의 내용이 지문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내용 일치 여부를 판단한다.

- ② 글에 제시된 핵심 정보나 중심 개념들과 관련하여, 각 정보의 특성이나 세부 내용의 파악, 각 정보의 비교, 정보 간의 관계 파악 등을 물을 수 있다.

발문 유형

- 읽글의 '맹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4. 9월 평가원)
- 읽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4. 3월 교육청)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2013. 9월 평가원)

해결 전략

- * 특정 이론이나 주장이 제시된 경우, 근거가 되는 내용도 함께 정리한다.
- * 대립된 주장이나 두 가지 이상의 개념들이 제시된 경우에는 각 정보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해서 파악한다.

비문학 만점 풀이법

〈미래로 독서 활용법〉

- 1 **문제 분석** 각 문제의 발문과 선택지 및 [보기]를 빠르게 훑어본다.
- 2 **지문 분석** 문제 분석을 바탕으로 지문을 읽으면서 밑줄을 긋거나 ○, △, □ 등 알기 쉬운 기호로 표시를 한다.
- 3 **반복 학습** 정답 및 오답풀이 등의 확인을 통해 반드시 복습을 한다.



DAY 17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65-16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③ **논리실증주의자의 포피는** 지식을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한 것과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에 의존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그중 과학적 지식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 구축된다고 주장한다. 가설은 과학적 지식의 후보가 되는 것인데, 그들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을 관찰이나 실험 등의 경험을 통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함으로써 그 가설을 시험하는 과학적 방법을 제시한다. 논리실증주의자는 예측이 맞을 경우에, 포피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하나의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④ **콰인은** 가설만 가지고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고 본다. 예를 들어 ⑤ **새로 발견된 금속 M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가설만 가지고는 ⑥ **열을 받은 M이 팽창할 것**이라는 예측을 이끌어낼 수 없다. 먼저 지금까지 관찰한 모든 금속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기존의 지식과 M에 열을 가했다는 조건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측은 가설, 기존의 지식 등,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합쳐야만 논리적으로 도출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정확히 무엇 때문에 예측에 실패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콰인은 개별적인 가설뿐만 아니라 ⑦ **기존의 지식들과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지식**이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된다는 총체주의를 제안한다.

논리실증주의자의 포피는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분석 명제와,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을 통해 참으로 판별되는 종합 명제를 서로 다른 종류라고 구분한다. 그러나 콰인은 총체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 구분을 부정하는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논리실증주의자의 포피의 구분에 따르면 "총각은 총각이다."와 같은 등이 반복 명제와,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처럼 등이 반복 명제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분석 명제이다. 그런데 후자가 분석 명제인 까닭은 전자가 환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원이 가능한 것은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이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인데 그게 왜 동의적 표현인지 물어보면, 이 둘을 서로 대체하더라도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두 표현의 의미가 같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해서, 동의적 표현은 언제나 반드시 대체 가능해야 한다는 필연성 개념에 다시 의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동의적 표현이 등이 반복 명제로 환원 가능하게 하는 것이 되어,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하게 되는 순환론에 빠진다. 따라서 콰인은 종합 명제와 구분되는 분석 명제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콰인은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로 지식을 엄격히 구분하는 대신, 경험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 중심부 지식과, 경험과 직접 충돌할 수 있는 주변부 지식을 상정한다. 경험과 직접 충돌하여 참과 거짓이 쉽게 바뀌는 주변부 지식과 달리 주변부 지식의 토대가 되는 중심부 지식은 상대적으로 견고하다. 그러나 이 둘의 경계를 명확히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콰인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을 다른 종류라고 하지 않는다.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은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에 있어 경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주변부 지식이 경험과 충돌하여 거짓으로 밝혀지면 전체 지식의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면 전체 지식의 변화가 크지 않지만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관련된 다른 지식이 많기 때문에 전체 지식도 크게 변화하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는 쪽을 선택하겠지만 실용적 필요 때문에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하여 콰인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이 원칙적으로 모두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지식의 변화도 더 이상 개별적 지식이 단순히 누적되는 과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총체주의는 특정 가설에 대해 제기되는 반박이 결정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가설이 실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언제든 그와 같은 반박을 피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그 가설을 받아 들일 수 있다. 그러나 총체주의는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닐 수는 없다."와 같은 논리학의 법칙처럼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지식은 분석 명제로 분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비판에 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지문 분석 노트

1 문단

2 문단

3 문단

4 문단

5 문단

165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과 ㉡이 모두 '아니오'라고 답변할 질문은?**

- ① 과학적 지식은 개별적으로 누적되는가?
- ② 경험을 통하지 않고 가설을 시험할 수 있는가?
- ③ 경험과 무관하게 참이 되는 지식이 존재하는가?
- ④ 예측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가?
- ⑤ 수학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은 종류가 다른 것인가?

166 **윗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포피가 제시한 과학적 방법에 따르면, 예측이 틀리지 않았을 경우보다는 맞을 경우에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지식으로 인정된다.
- ② 논리실증주의자에 따르면,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가 분석 명제인 것은 총각을 한 명 한 명 조사해 보니 모두 미혼의 성인 남성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 ③ 콰인은 관찰과 실험에 의존하는 지식이 관찰과 실험에 의존하지 않는 지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한다.
- ④ 콰인은 분석 명제가 무엇인지는 동의적 표현이란 무엇인지에 의존하고, 다시 이는 필연성 개념에,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한다고 본다.
- ⑤ 콰인은 어떤 명제에, 의미가 다를 뿐만 아니라 서로 대체할 경우 그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으면, 그 명제는 등이 반복 명제라고 본다.

167 **윗글을 바탕으로 총체주의의 입장에서 ㉢~㉤에 대해 평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그것이 ㉤ 때문이라고 단정하지 못하겠군.
- ② ㉣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의 어느 부분을 수정하느냐는 실용적 필요에 따라 달라지겠군.
- ③ ㉤는 ㉡와 ㉢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다고 하겠군.
- ④ ㉢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는 ㉢의 주변부에서 경험과 직접 충돌한 것이라고 하겠군.
- ⑤ ㉢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를 수정하는 방법으로는 ㉢를 받아들이 수 없다고 하겠군.

168 **윗글의 총체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이 경험과 충돌하더라도 그 충돌 때문에 가설이 틀렸다고 할 수 없다.
- ② 논리학 지식이나 수학적 지식이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에 위치한다고 해서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 ③ 전체 지식은 어떤 결정적인 반박일지라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 대상을 주변부 지식으로 한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 ④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주변부 지식도 수정해야 하겠지만, 주변부 지식을 수정한다고 해서 중심부 지식을 수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⑤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 간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해도 중심부 지식 중에는 주변부 지식들과 종류가 다른 지식이 존재한다.

169 **문맥상 ㉠과 바귀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잇따른다 ② 다다른다 ③ 봉착한다
- ④ 회귀한다 ⑤ 기인한다

DAY 17 **스스로 점검하기**

| 구분 | 소요 시간 | 분 초 | 맞힌 개수 | / 3 | 틀린 문항 |
|----|-------|-----|-------|-----|-------|
| 가설 | 소요 시간 | 분 초 | 맞힌 개수 | / 3 | 틀린 문항 |
| 예측 | 소요 시간 | 분 초 | 맞힌 개수 | / 3 | 틀린 문항 |
| 인론 | 소요 시간 | 분 초 | 맞힌 개수 | / 5 | 틀린 문항 |

1 문제 분석

각 문제의 발문과 선택지 및 [보기]를 빠르게 훑어본다.

165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과 ㉡이 모두 '아니오'라고 답변할 질문은?

- ① 과학적 지식은 개별적으로 누적되는가?
- ② 경험을 통하지 않고 가설을 시험할 수 있는가?
- ③ 경험과 무관하게 참이 되는 지식이 존재하는가?
- ④ 예측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가?
- ⑤ 수학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은 종류가 다른 것인가?

문제의 유형들을 파악해야 지문 분석의 방향을 정할 수 있어~

문제 유형 1

발문에서 지정한 ㉠과 ㉡에 대한 세부 정보를 파악하여 비교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 ㉠과 ㉡에 해당되는 각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비교!

166

윗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포퍼가 제시한 과학적 방법에 따르면, 예측이 틀리지 않았을 경우보다는 맞을 경우에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지식으로 인정된다.
- ② 논리실증주의자에 따르면,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가 분석 명제인 것은 총각을 한 명 한 명 조사해 보니 모두 미혼의 성인 남성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 ③ 콰인은 관찰과 실험에 의존하는 지식이 관찰과 실험에 의존하지 않는 지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한다.
- ④ 콰인은 분석 명제가 무엇인지는 동의적 표현이란 무엇인지에 의존하고, 다시 이는 필연성 개념에 의존한다.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한다고 본다.
- ⑤ 콰인은 어떤 명제와 다른 명제와도 서로 대체할 경우 그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을 판정할 수 있으면, 그 명제는 동어 반복 명제라고 본다.

발문의 핵심과 선택지의 핵심을 이렇게 □로 표시해 두면 지문을 읽을 때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지.

문제 유형 1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 지문에 언급된 학자들의 각각의 견해를 정확하게 파악!

165번과 166번은 크게 보면 같은 범주에 들어가는 문제 유형이야. 하지만 묻는 포인트가 달라. 165번은 해당되는 학자의 주장을 비교할 수 있는지를, 166번은 단순히 각 학자의 견해를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있어.

167

윗글을 바탕으로 총체주의의 입장에서 ㉠~㉢에 대해 평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그것이 ㉠ 때문이라고 단정하지 못하겠군.
- ② ㉠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의 어느 부분을 수정하느냐는 실용적 필요에 따라 달라지겠군.
- ③ ㉠는 ㉡와 ㉢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다고 하겠군.
- ④ ㉠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는 ㉢의 주변부에서 경험과 직접 충돌한 것이라고 하겠군.
- ⑤ ㉠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를 수정하는 방법으로는 ㉡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군.

문제 유형 4

특정 관점에 대한 반응의 적절성을 묻는 문항. 총체주의의 핵심 내용을 빠르게 이해한 후, ㉠~㉢ 간의 상관관계 따지기!



美來路

수능 기출문제집 시리즈

제재별로 감잡기



수능 지문과 유형 분석(10개년)

| 연도 | 영역 | 문항수 | 제목 | 문제 출제 유형 | |
|------|-----|-----|--------------------|--|--|
| 2018 | 철학 | 4 |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 | 1. 글의 내용 전개 방식 파악 2. 핵심 정보의 파악 3. 세부 정보의 파악 4. 내용들 간의 의미 관계 파악 | |
| 2017 | 논리학 | 5 | 지식의 구분 | 1. 관점의 차이 이해 2. 세부 내용의 파악 3. 반응의 적절성 판단 4. 비판적 이해 5.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 |
| 2016 | A형 | 논리학 | 4 | 귀납에 내재된 논리적 한계 | 1. 글의 내용 전개 방식 파악 2. 세부 정보의 파악 3. 비판적 이해 4. 다른 상황에 적용 |
| | B형 | 철학 | 4 | 도덕적 운과 도덕적 평가 | 1. 세부 정보의 추론 2. 글쓴이의 관점 파악 3. 구체적 사례에 적용 4.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 |
| 2015 | A형 | - | - | - | - |
| | B형 | 역사 | 4 | 신채호의 역사관 | 1. 개괄적 내용의 파악 2. 핵심 정보의 이해 3. 세부 정보의 추론 4.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 |
| 2014 | A형 | 역사 | 2 | 토인비의 역사 연구 | 1. 세부 정보의 파악 2. 반응의 적절성 판단 |
| | B형 | 철학 | 3 | 심신 이원론과 심신 일원론 | 1. 세부 정보의 파악 2. 정보 간의 의미 관계 파악 3. 다른 상황에 적용 |
| 2013 | 논리학 | 4 | 과학적 지식의 정당화 방법 | 1. 세부 정보의 파악 2. 추론의 적절성 판단 3. 자료 해석의 적절성 판단 4.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 |
| 2012 | 철학 | 4 |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철학 논고』 | 1. 세부 정보의 파악 2. 구체적 사례에 적용 3. 핵심 정보의 관계 파악 4. 관점의 파악 및 추리 | |
| 2011 | 역사 | 4 | 자산의 개혁 | 1. 세부 정보의 파악 2. 반응의 적절성 판단 3. 자료를 활용한 비판의 적절성 판단 4.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 | |
| 2010 | 철학 | 3 | 지행론의 변화와 그 배경 | 1. 개괄적 정보의 파악 2. 추론의 적절성 판단 3. 다른 사례에 적용 | |
| 2009 | 논리학 | 3 | 집단 수준의 인과 | 1. 서술 방식의 파악 2. 세부 정보의 추론 3. 논리의 추리와 적용 | |



인문

THINK MORE ABOUT YOUR FUTURE

인문 분야의 글은 인간의 다양한 사유, 경험, 사건 등을 대상으로 그 정신적 가치나 의미를 밝히고 있다. 동서양의 고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범위의 역사, 사상, 철학, 윤리, 논리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다.

▶ 수능 지문 출제 경향

인문 제재에서는 철학, 역사, 논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글들이 출제되고 있는데, 그 중 **철학과 논리학에 관련된 지문이 빈번하게 출제되고 있다.**

대체로 서양 철학보다는 동양 철학을 다루는 지문이 출제되고, 특정 철학자의 견해나 사상을 이해하는 지문부터 철학의 역사나 여러 철학적 견해를 다루어 차이점을 비교하는 지문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 수능 문제 출제 경향

수능에서 **인문 제재의 문항 수**는 2014 수능 A형에서 2문항이 출제된 적이 있으나, **대체로 3~4 문항 정도가 꾸준히 출제되었다.** 그리고 2017학년도 수능에서는 5문항이 출제되기도 하였다.

인문 제재의 문제 유형은 세부 정보의 파악, 서술상의 특징 파악, 추론의 적절성 판단, 구체적 사례에 적용 등이 출제되며, 그 중 **세부 정보의 파악이나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유형이 빈번하게 출제된다.** 특히 구체적 사례나 다른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 유형의 경우에는 지문의 내용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풀 수 있으므로,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연습을 해 두어야 한다. 또 최근에는 글쓴이의 관점의 이해나 다른 관점과의 차이를 파악하는 유형의 문제도 출제되고 있다.



[001~0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공상 과학 영화 속의 사이보그를 보면, 인간과 똑같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하듯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그렇다면 그들을 인간이라고 보아도 되는 것인가? 과연 인간을 인간이 아닌 것, 즉 비인간과 구분 지을 수 있는 고유의 인간성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인가?

17세기 데카르트는 동물과 인간의 몸은 유사하지만, 동물과 달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존재하며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이렇게 정신과 육체를 분리함으로써 동물과 인간을 구분 지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은 자유롭고 주체적인 의식을 지닌 유일한 존재로서 그 우월적 지위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관점은 19세기 유물론이나 진화론 등이 대두되면서 흔들리기도 했지만, 실제 삶 속에서 인간이 아닌 존재가 인간의 우월성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런데 20세기 이후 고유의 인간성을 인정했던 관점은 과학 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기계 장치의 이식이나 유전자 변이에 의해 강화된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새로운 존재, 소위 '포스트휴먼'이 등장하면서 고유의 인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미 인공팔과 인공망막 등이 신체에 이식되고 있으며, 앞으로 인공지능의 개발로 생각할 수 있는 컴퓨터가 등장하고, 더 나아가 기계 인간인 사이보그가 등장하리라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의 경계가 흐릿해지고, 이제 인간은 자신의 영역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고 있는 포스트휴먼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을 맞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인간이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기계를 만들었지만, 이제 인간은 자신이 만든 기계 환경에 맞추어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기계는 이제 더 이상 인간의 도구로서만 존재하지 않고, 인간의 의식에 관여하고, 더 나아가 인간의 삶의 방식 자체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된다면 기계에 대한 인간의 배타적 우월성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질 것이다.

포스트휴먼의 등장은 그동안 고유의 인간성을 인정해 왔던 관점에 대해 진지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성찰이 인간의 배타적 우월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간을 인간이 아닌 것과 구분하는 또 다른 기준을 찾아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포스트휴먼에 관한 논의는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을 구분해 왔던 관점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지문 분석 노트

1 문단:

2 문단:

3 문단:

4 문단:

5 문단:

주제:



[004~00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이란 어떤 일의 결과를 알고 난 후에 마치 처음부터 그 일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믿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주변에서 발생한 일에 대하여 실제로는 그 일을 예측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할 수 있었다고 믿는 것이 이 편향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다. 우연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역사적 사건들이 결과가 알려지고 난 후에는 대개 필연적인 사건들로 해석되는 것도 이 편향의 결과이다. 이 편향 때문에 사람들은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었다.'라고 착각하게 된다.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의 발생 원인에 대한 설명은 동기적 설명과 인지적 설명으로 나뉜다. 동기적 설명은 우선 '통제감'에 대한 추구와 관련된다. 통제감이란 '자신이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며 미래의 일을 예측할 수 있다고 믿는 생각'을 의미한다. 이러한 통제감을 확인하려는 동기가 작용하기 때문에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 또 다른 동기적 설명에서는 자신을 지적인 모습으로 제시하고 싶어 하는 자기 과시의 동기를 원인으로 들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사건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동기가 있기 때문에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

인지적 설명은 '잠입적 결정론'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동기적 설명에 비해 더 강한 지지를 받아 왔다. 이 이론에서는 어떤 일의 결과가 사람들의 정신적 표상에 '잠입'한다고 본다. 즉 결과를 알고 나면 결과에 대한 정보가 즉각적이고 자동적으로 사람들의 표상에 통합된다는 것이다. 이 새로운 표상은 선행 사건과 가능한 결과들에 대한 인과 관계 모형을 변화시켜, 주어진 결과와 선행 사건의 인과 관계를 강화시키지만 일어나지 않은 결과와 선행 사건의 인과 관계는 약화시킨다. 결과적으로 사후에 갖게 되는 표상에서는 일어난 결과만이 존재하게 되고 가능했던 다른 결과들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다른 결과들에 대한 사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일어난 결과와 관련된 사고만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인지적 설명에 의하면, 사람들은 어떤 일의 결과가 알려지면 왜 그러한 일이 발생했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때 그러한 설명을 쉽게 만들어 낼 수 있을수록 사후 과잉 확신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본다. 사후 과잉 확신의 발생에는 인과 추리가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사후 과잉 확신의 크기는 사후 설명의 용이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은 판단 및 의사 결정의 정확성과 질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과 의사 결정에서 중요한 편향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감소시키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문 분석 노트

1 문단:

2 문단:

3 문단:

4 문단:

5 문단:

주제:

004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유추의 원리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② 특정 이론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 ③ 특정 현상을 바라보는 상반된 관점을 절충하고 있다.
- ④ 정의와 구분의 방식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⑤ 기존 이론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답률 90% ↑ 70% ↑ 50% ↑ 30% ↑

MY note

I

인문

DAY
01

005 윗글을 읽고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 ① 사후 과잉 확산 편향으로 인해 사람들은 어떤 착각을 할 수 있는가?
- ② 사후 과잉 확산 편향 외에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편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③ 잠입적 결정론에서는 사후 과잉 확산 편향이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 ④ 사후 과잉 확산 편향의 원인에 대한 동기적 설명에서 언급되는 ‘통제감’이란 무엇인가?
- ⑤ 사후 과잉 확산 편향의 원인에 대한 동기적 설명과 인지적 설명 중 어느 것이 더 강한 지지를 받아 왔는가?

정답률 90% ↑ 70% ↑ 50% ↑ 30% ↑

MY note

006 윗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후 과잉 확산 편향’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후 설명이 용이할수록 사후 과잉 확산 편향은 더 약하게 나타난다.
- ② 사후 과잉 확산 편향을 감소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 ③ 사후 과잉 확산 편향에 대한 인지적 설명은 잠입적 결정론으로도 알려져 있다.
- ④ 사후 과잉 확산 편향은 올바른 판단과 의사 결정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많다.
- ⑤ 사후 과잉 확산 편향의 결과로, 우연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역사적 사건들이 필연적인 사건들로 해석될 수 있다.

정답률 90% ↑ 70% ↑ 50% ↑ 30% ↑

MY note

007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 | |
|---|--|
| ㉗ | 심리학자인 피쇼프는 1972년 닉슨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실험 대상자들에게 닉슨이 마오쩌둥을 만나 회담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을지 그 결과를 예측하게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결과를 부정적으로 예측했다. |
| ↓ | |
| ㉘ | 닉슨과 마오쩌둥의 만남이 성사되었고 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양국은 적대 관계를 청산하기로 했다. |
| ↓ | |
| ㉙ | 닉슨이 돌아온 후, 피쇼프는 같은 사람들에게 방문 결과를 어떻게 예측했는지 다시 물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회담 결과를 낙관적으로 예측했다고 기억했다. 닉슨과 마오쩌둥의 회담이 실패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조차 자신은 회담이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던 것으로 기억했다. 피쇼프는 이러한 실험 결과가 사후 과잉 확신 편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

- ① 동기적 설명에 따르면, ㉗에서 회담 결과를 부정적으로 예측했던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믿는 생각이 약해 ㉙에서 실제 일어난 결과에 더 많이 의존해 답했겠군.
- ② 동기적 설명에 따르면, 통제감을 확인하거나 자신을 과시하려는 동기를 지닌 실험 대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㉘와 같은 실험 결과가 나타난 것이겠군.
- ③ 인지적 설명에 따르면, ㉘의 피쇼프의 물음에 대해 실험 대상자들이 답할 때 ㉙의 회담 결과가 실험 대상자들의 인과 관계 모형을 변화시켰을 수 있겠군.
- ④ 인지적 설명에 따르면, ㉗에서 회담 결과를 부정적으로 예측했던 사람들 중에는 ㉘의 회담 결과에 관한 정보가 자신이 지닌 정신적 표상에 통합된 사람들이 있겠군.
- ⑤ ㉘에서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을 보인 실험 대상자들은 ㉙의 회담 결과를 알고 난 후에 마치 처음부터 ㉘와 같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처럼 믿은 사람들이겠군.

정답률 90%↑ 70%↑ 50%↑ 30%↑

㉘ 고난도 문항 Guide

'사후 과잉 확신 편향'에 관한 설명을 이해하고 [보기]에 적용하여 해석하는 문제이다.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을 발생 원인에 따라 나는 '동기적 설명'과 '인지적 설명'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㉗, ㉘, ㉙에 적용하여 문제를 풀기에 수월하다.

MY note



[008~0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대 중국에서 '대학'은 교육 기관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이 '대학'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전하고 있는 책이 『대학』이다. 유학자들은 『대학』의 '명명덕(明明德)'과 '친민(親民)'을 공자의 말로 여기지만, 그 해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경문 해석의 차이는 글자와 문장의 정확성을 따지는 훈고(訓詁)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해석자의 사상적 관심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주희와 정약용은 ㉠ '명명덕'과 '친민'에 대해 서로 다르게 해석한다. 주희는 '명덕(明德)'을 인간이 본래 지니고 있는 마음의 밝은 능력으로 해석한다. 인간이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명덕을 지니고 있어서인데 기질에 가려 명덕이 발휘되지 못하게 되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도덕 실천을 위해서는 명덕이 발휘되도록 기질을 교정하는 공부가 필요하다. '명명덕'은 바로 명덕이 발휘되도록 공부한다는 뜻이다. 반면, 정약용은 명덕을 '효(孝)', '제(弟)', '자(慈)'의 덕목으로 해석한다. 명덕은 마음이 지닌 능력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 실천해야 하는 구체적 덕목이다. 어떤 사람을 효자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효를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효를 실천했기 때문이다. '명명덕'은 구체적으로 효, 제, 자를 실천하도록 한다는 뜻이다.

유학자들은 자신이 먼저 인격자가 될 것을 강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뿐 아니라 백성 또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을 원칙으로 삼는다. 주희도 자신이 명덕을 밝힌 후에는 백성들도 그들이 지닌 명덕을 밝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 가르쳐야 한다고 본다. 백성을 가르쳐 그들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 '신민(新民)'이다. 주희는 『대학』을 새로 편찬하면서 고본(古本) 『대학』의 '친민'을 '신민'으로 ㉤ 고쳤다. '친(親)'보다는 '신(新)'이 '백성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든다'는 취지를 더 잘 표현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반면, 정약용은 친민을 신민으로 고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정약용은 '친민'을 백성들이 효, 제, 자의 덕목을 실천하도록 이끄는 것이라 해석한다. 즉 백성들로 하여금 자식이 아버지를 사랑하여 효도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여 자애의 덕행을 실천하도록 이끄는 것이 친민이다. 백성들이 이전과 달리 효, 제, 자를 실천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새롭다는 뜻은 있지만 본래 글자를 고쳐서 는 안 된다고 보았다.

주희와 정약용 모두 개인의 인격 완성과 인륜 공동체의 실현을 이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그 이상의 실현 방법에 있어서는 생각이 달랐다. 주희는 개인이 마음을 어떻게 수양하여 도덕적 완성에 ㉥ 이를 것인가에 관심을 둔 반면, 정약용은 당대의 학자들이 마음 수양에 치우쳐 개인과 사회를 위한 구체적인 덕행의 실천에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문제를 ㉦ 바로잡고자 하는데 관심이 있었다.

지문 분석 노트

1 문단:

2 문단:

3 문단:

4 문단:

주제:

008 뒷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학'은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 공자가 건립한 교육 기관이다.
- ② 주희는 사람들이 명덕을 교정하지 못하여 잘못된 행위를 한다고 보았다.
- ③ 주희와 정약용의 경전 해석에서 글자의 훈고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 ④ 주희와 정약용 모두 도덕 실천이 공동체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⑤ 정약용의 『대학』 해석에는 마음 수양의 중요성에 대한 그의 관심이 반영되었다.

정답률 90%↑ 70%↑ 50%↑ 30%↑

MY note

009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에 대한 주희와 정약용의 해석은 일치한다.
- ② 주희와 정약용 모두 ㉠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를 강조하였다.
- ③ 주희는 ㉠을 ‘효’, ‘제’, ‘자’라는 구체적 덕목을 실천하는 것으로 보았다.
- ④ ㉡에는 백성 또한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주희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 ⑤ 정약용은 ㉡가 고본 『대학』의 ‘친민’의 본래 의미를 잘 나타내었다고 보았다.

정답률 90%↑ 70%↑ 50%↑ 30%↑

MY note

010 윗글과 [보기]를 근거로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기 —

왕양명은 당시에 통용되던 『대학』의 ‘신민’을 고본 『대학』에 따라 ‘친민’으로 고쳤다. 그는 백성이 가르쳐야 할 대상인 동시에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가르침에 치중한 ‘신’보다는 ‘친’이 적합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정약용은 왕양명이 ‘명덕’을 마음의 밝은 능력으로 해석한 점을 지적하면서, 왕양명이 ‘명덕’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 ‘친민’ 또한 바르게 해석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 ① 왕양명과 정약용은 ‘명덕’을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였다.
- ② 정약용은 왕양명의 ‘명덕’ 해석이 주희와 다르다고 보았다.
- ③ 왕양명의 ‘친민’ 해석은 주희가 아닌 정약용의 해석과 일치한다.
- ④ 왕양명과 정약용은 고본 『대학』의 ‘친민’을 수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⑤ 왕양명은 ‘친민’을 ‘신민’으로 고친 주희의 해석이 백성을 가르침의 대상으로 한정된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정답률 90%↑ 70%↑ 50%↑ 30%↑

고난도 문항 Guide

‘명명덕’과 ‘친민’에 대한 주희와 정약용의 견해와 [보기]의 왕양명의 견해를 근거로 해석한 내용의 적절성을 판단해야 한다. 주희와 정약용의 견해뿐 아니라 [보기]에서 언급된 왕양명의 견해도 종합적으로 이해하여 그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MY note

011 문맥상 ㉠~㉤을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인도(引導)해야
- ② ㉡: 지시(指示)해야
- ③ ㉢: 개편(改編)했다
- ④ ㉣: 도착(到着)할
- ⑤ ㉤: 쇄신(刷新)하고자

정답률 90%↑ 70%↑ 50%↑ 30%↑

MY note

DAY 01

스스로 점검하기

| | | | | | |
|-------|-------|-----|-------|-----|-------|
| 인문 01 | 소요 시간 | 분 초 | 맞힌 개수 | / 3 | 틀린 문항 |
| 인문 02 | 소요 시간 | 분 초 | 맞힌 개수 | / 4 | 틀린 문항 |
| 인문 03 | 소요 시간 | 분 초 | 맞힌 개수 | / 4 | 틀린 문항 |